

# 구글사의 위성영상과 미국의 지명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난 일본식 지명연구 : 미국 군사지도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박 경\*\*

## Japanese Place Names in Google Earth Images and GeoNames Database from the Perspective of Linkage with Topographic Maps Published by Army Map Service\*

Kyeong Park\*\*

**요약 :** 미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 중인 242매의 1:50,000 축척의 지도를 분석하였다. 미육군지도창에서 발간된 지도에 대하여 지도제작을 위한 데이터 수집방법과 제작연도 및 지명표기를 위해 사용된 언어를 중심으로 난외주기를 읽어서 정리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240개 지도 가운데 91개 도엽의 지도는 1910년대와 1930년대에 발간된 일본이 제작한 지도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며, 24개 지역의 지도는 일본이 제작한 지도를 기반으로 재제도한 것이다. 가장 많은 수인 125개 도엽은 일제 강점기의 지도에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 전후로 미군이 수집한 항공촬영정보를 보완하여 편집한 지도이다. 일본식 지명은 복제된 지도와 대부분의 편집된 지도에 그대로 나타나며, 이들이 미국의 국가지리정보국에서 운영 중인 지명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게 되고 현재까 지도 이칭의 형태로 남아 구글 어스 지도와 같은 인터넷 매체에 발견되는 오류의 근원이 되고 있다.

주요어 : 미육군지도창, 1:50,000지도, 지명, 지명 데이터베이스, 국가지리정보국

**Abstract :** Two hundred forty topographic maps stored in Korean War Project site have been analyzed. Data collection methods, year of publication, and languages used for place names have been analyzed through marginal note of each map produced by Army Map Service. Ninety-one maps are direct copies of Japanese topographic maps published in 1910s and 1930s. Twenty four maps are redrawn after Japanese topographic maps. One hundred twenty five maps are compiled from Japanese maps and aerial survey data collect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nd Korean War. Japanese place names for the Korean places appear in the copied and compiled maps. These names are stored as variants in GeoNames database run by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of the USA. This database seems to be the origin of errors occasionally found in Google Earth maps.

Key Words : Army Map Service, 1:50,000 topographic map, Place names, GeoNames database, NGA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8-B00588/1).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kpark97@sungshin.ac.kr)

## I. 서론

### 1. 연구 목적

지명(Place name)이란 지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연지리적 실체와 더불어 인문지리적 실체에 대한 명칭의 총칭이다. 지명은 사회역사적 산물이며 여러 수준의 인간 소통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Randall, 2001). 지명의 발음 방식조차도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으며 심지어 사람의 이름처럼 유사한 사상으로부터 한 사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세계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현재, 외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외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도 단순한 지도책을 넘어 다양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구글어스나 구글 맵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빙맵 등 매우 다양화되고 쉬워졌다. 다른 나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구하는 지리학자와 여행자 같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지명은 가장 핵심적인 학문과 여가를 위한 소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 사용되는 지명 데이터베이스의 기준이라고 할 만한 미국 지명위원회의 남한지명데이터베이스에는 상당수 일본식 지명을 채용

한 지명이 이칭(Variant)이라는 단서를 달고 기재되어 있으며, 미국지명위원회의 지명을 그대로 반영한 지도가 현재까지도 서비스되고 있었다(박경·장은미, 2008).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09년 1월의 구글어스에서 전체 2701개 지점의 우리나라지명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 116개의 지명이 다양한 형태의 오류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오류의 대부분은 한국어 지명에 대한 일본식 발음을 그대로 로마자화한 지명이었다(국토지리정보원, 2008). 이들 오류는 이후 관계 기관과 학자들의 지속적인 시정 노력에 의해 대부분 시정되었지만 이러한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제는 이러한 오류가 미군에서 사용하던 지도에서 기원한 부분이 클 것으로 가정하고 한국전 당시에 미군이 사용하던 군사지도를 분석하여 이러한 문제의 기원을 찾고자 하였다.

지도뿐 아니라 사회교과서의 내용도 각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인식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세계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내용이 과거의 교과서에 비하여 많이 시정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경한, 2004; 손용택·한관중, 2006). 하지만 백두산, 동해 또는 독도 지명처럼 아직도 사실적 오류와 더불어 국제관계에서의 정치적 갈등구조 때문에 많은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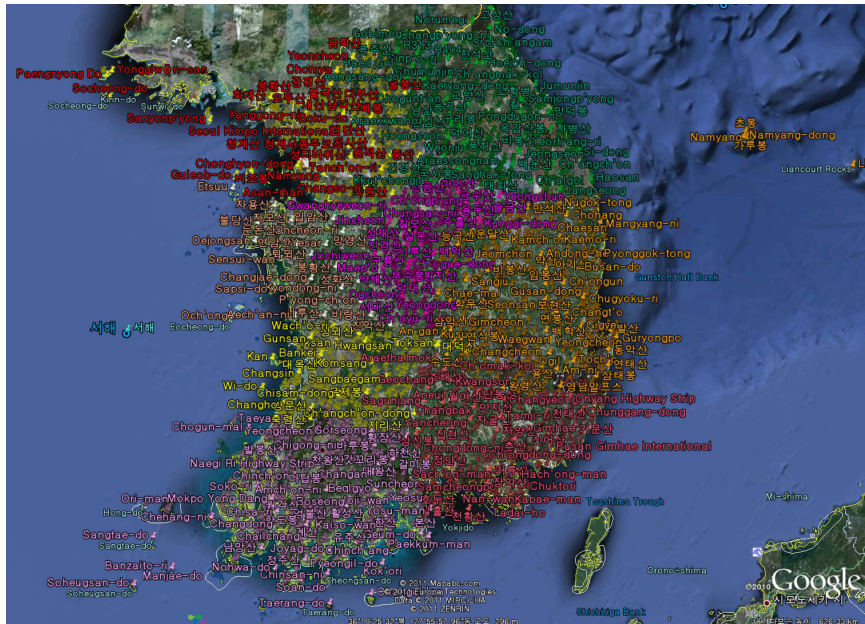


그림 1. 2009년 1월 구글어스에 나타난 우리나라지명의 위치

출처: 구글어스, <http://www.google.com/intl/ko/earth>

류가 남아 있는 점도 사실이지만(주성재, 2007; 국립해양조사원, 2006; <http://www.mofat.go.kr>), 무엇보다도 검색 가능한 한국어 지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박경 등, 2009). 그 중 미국의 위성영상서비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구글사의 검색서비스와 국가공간정보국의 지명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미국의 국가지리정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GeoNames 데이터베이스는 2011년 6월 현재 168,515개의 우리나라 관련 지명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http://earth-info.nga.mil/gns/html/index.html>). 이렇게 광범한 내용과 더불어 약 2주 정도의 짧은 업데이트 주기를 가진 미국의 지명데이터베이스는 신속한 데이터 제공으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지명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론리플래닛 같은 관광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구글 사에서 운영 중인 위성영상과 그 위에 표기된 지명이 우리 정서와 맞지 않게 일본식 지명으로 표시되거나 우리가 판단하기에 너무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오류들이 자주 발견되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그 배경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제이다.

## 2. 연구방법 및 주제

그림 2에 나타난 것처럼 본 연구는 미국의 지명위원회(BGN)에서 운영 중이며, 국가지리정보국(NGA)에서 관리하는 지명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지명과 구글 영상지도를 비교하여 일본식 지명, 영문지명 또는 국적불명의 지명으로 표기된 지명들의 기원에 대한 문서적 근거를 찾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한반도 영상을 제공하는 Google Earth프

로그램을 검색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영문알파벳으로 표현되어 있는 지명 전체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 가운데 일본식 표현 또는 영문지명으로 표기된 지명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작성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것은 기존 연구를 통해 상세히 제시하였다(박경 등, 2009)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다시 미군에서 사용 했던 군사지도와 비교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현재까지 문헌과 웹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조사한 바로는 1945년에 일부 도시지역에 대한 1:12,500 도엽이 발간되었으며, 1950년대 초반 1:25,000 도엽이 작성되고 이와 더불어 일제시대 1910~1940년까지 발간된 지도를 편집하여 작성한 한반도 전체에 대한 242매의 1:50,000 축척의 군사지도가 있으며, 그 이후 1960년에 편집된 1:250,000 축척의 군사지도가 통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가운데 미국의 Korean War Project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첫 글자 알파벳 A인 안성장부터 W자인 원산 도엽까지 전체 242개 도엽 가운데 중복된 2개 도엽을 제외한 240개 도엽의 1:50,000 지도를 다운받아 난외주기의 내용 가운데 특히 제작정보를 확인 정리하여 미국 군사지도에서 사용된 지도의 제작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구글 영상지도에 나타난 지명오류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실제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명들은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의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상황에서 어떤 자료로 미국의 데이터베이스가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연구의 주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 II. 미군사지도의 한국지명의 로마자화 표기의 역사

우리나라 지명에 대한 미군의 로마자화 표기의 역사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국어의 로마자화 표기에 대한 변천사를 먼저 알아보고 이후 미군지도에 나타난 한국지명의 로마자화의 역사를 검토하고자한다.

###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역사

우리말의 로마자화 표기의 역사는 대략 3개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의 입국이 공식 허용된 19세기를 전후하여 주로 서양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표기법을 고안하던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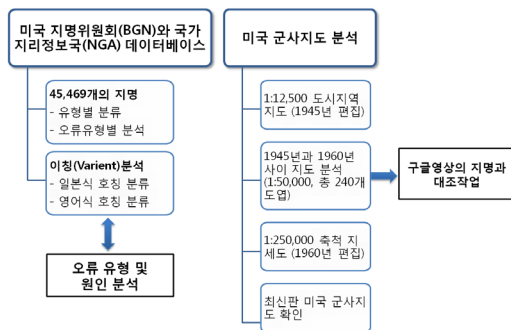


그림 2. 연구체계도

이고, 둘째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및 국내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표기법을 만들어 사용하던 시기이며, 세 번째는 광복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로마자 표기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여 사용을 권장한 시기이다(정희원, 1997; 양병선, 2000; 배재덕, 2009).

물론 19세기 이전에도 Satow and Chamberlain(1882)에 의한 우리말 로마자화의 기록이 있지만, 체계적인 표기법의 출현은 대개 19세기 초반으로 보고 있다. 1832년에 당시 일본 정부의 고문이었던 독일인 의사 지볼트의 안으로부터 시작하여 1920년대까지 약 27개 안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남영우·김부성, 2009). 보다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안)은 1880년대 초부터 한국어 사전과 한국어 학습서가 프랑스어·영어·독일어 등 외국어로 출판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편찬하여 1880년 간행한 「한불주언」과 1881년 출판된 「한국어 문법」, 1882년에 영어로 출판된 로스의 「한국어 회화」, 1890년의 「한영주언」, 독일의 가벨렌츠가 편찬하여 1892년 출판된 「한국 문자와 언어 개관」 등에서 한국어 어휘가 일정한 원칙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의 표기법은 대개 우리말 어휘나 한글 자모를 특정한 로마자에 대응시켜 표기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김수남, 2002).

이어 1903년에 일본 동경제국대학 교수였으며, 지리학자인 고토분지로와 가나자와(1903)가 「A Catalogue of the Romanized Geographical Names of Korea」에서 우리말을 로마자화하여 표기한 뒤,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명의 일본인 학자들이 각각 로마자 표기법을 구상하여 발표하였다. 1933년에는 프랑스의 아그노엘이 불어식 음성 표기법을 내놓았고, 1935년에는 조선어학회의 회원이던 정인섭이 「조선어음의 만국 음성부호 표기」를 발표하였다. 정인섭의 안은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하여 발표한 「조선어음 로마자(羅馬字) 표기법」(1940)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1959년에 문교부에서 고시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에도 그 정신이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김수남, 2002). 1930년대의 한글 로마자화 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1939년에 발표된 매클라이사워 표기법(이후 M-R 표기법)이다. 이는 평양 숭실전문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미국인 선교사 매클과 당시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에서 일본사를 전공하던 라이사워가 국내외 학자들의 협조를 얻어 제정하였는데, 1939년에 발표된 이후 오늘날까지 영어권에서는 한글의 로마

자 표기법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UN과 미국·영국의 지명위원회에서 로마자표기법의 표준으로 활용하고 있다(UN, 2006; <http://www.pcgng.org.uk>).

1945년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물러간 뒤에도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한글학회의 안과 M-R 표기법 가운데 어느 것도 일반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정부에서는 문교부 학술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1948년 「한글을 로마자로 적는 법」을 제정·고시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 안으로 M-R 표기법과 매우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1959년에 개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10여 년간 한국 정부의 공식 안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광복 이후 미국에서 전자음을 바탕으로 하는 두 가지의 한글 로마자화 안이 나오게 되었다(정희원, 1997). 하나는 1947년에 나온 루코프(Lukoff)의 표기법이고, 다른 하나는 1954년 예일 대학의 마틴 교수가 창안한 예일 체계이다. 이 중 예일 체계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언어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법으로서 정확성과 조직성이 뛰어난 체계로 평가 받고 있다. 당시 국내에서는 1948년에 발표한 문교부 안이 공식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널리 사용되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1959년에 문교부는 국내외의 다양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을 통일하기 위해 두 번째 문교부 안을 제정하여 고시하게 되었다. 이것이 한글의 맞춤법에 따라 로마자를 배당하는 새로운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이다. 그러나 새로운 표기법도 일반의 호응을 널리 얻지 못하고 교과서나 정부 간행물, 지도 등에만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미군 등 외국 기관이나 영자 신문 등에서는 M-R 표기법 체계가 여전히 사용되었다.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또 다시 개정에 대한 요구가 나오게 되었으며, 이에 문교부는 1980년대에 들어 로마자 표기법을 다시 검토하여 M-R 표기법과 거의 비슷한, 새로운 로마자 표기법을 공포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1984년에 제정·고시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다. 하지만 이 방식도 발음 위주의 전사법으로 문제가 많아 2000년 문화관광부에서 새로운 표기법이 제정되어 오늘날에 사용되고 있다(정희원, 2005).

## 2. 일본식 로마자화 표기의 등장 배경

본래 일본이 발간한 지도 가운데 전국을 포함하는 것 가

운데 가장 시기가 이른 것은 군용비도라 불려졌던 1895~1906년에 제작된 1:50,000 축척의 지도이며, 이후 1909~1911년, 그리고 1914~1918년까지 축도된 것들이 있다. 특히 제3차로 제작된 지도는 토지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삼각측량에 의해 제작된 한반도 최초의 1:50,000 축척의 지도로서 정확도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일제에 의해 한반도 기본도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남영우, 2007; 남영우·이호상, 2010). 이들 지도에는 로마자화되어 표기된 우리지명은 없고, 한자로 표기된 우리 지명이 일본식 발음으로 가타카나로 표기되어 일본식 지명이 괄호 안에 병기되어 나타난다. 여기에 나타난 일본어 지명은 개정 헵번식 로마자 표기법(Modified Hepburn Romaji)을 사용한 것으로, 추후 논의할 미군의 군사지도에 로마자화되어 병기되는 근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이 제작한 지도 가운데 우리나라지명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지도는 1934년 일본토지측량부에서 제작한 1:1,000,000 축척의 일본제국도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이 지도는 3개 도엽의 한반도 관련 지도를 포함하는데 Ryozyun(NJ51), Keizyo(NJ52), Nagasaki(NI52)가 이들이다. 이 지도는 일본어 로마자화 원칙을 채택한 최초의 지도로 추정된다(박경 등, 2009). 이후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1:1,500,000 축척의 전국지도가 작성되는데 이 지도는 지형을 음영으로 수권은 파란색, 도로는 빨강색, 그리고 지명과 철도, 행정구역 경계를 표시하고 있다. 이 지도를 기반으로 하여 미군의 Army Map Service(1943)가 제작한 Map of Korea(Chosen)가 발간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지도는 한반도 전체의 지명을 일본어로마자화 표기법으로 일관되게 작성하였고, 이 지도의 지명집 Place Name Index for Korea(Chosen)에는 1,194개의 우리나라 지명이 한국식과 일본식으로 로마자화한 지명이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책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McCune Reischauer System of Transcription  
 Guide to the Pronunciation of Romanized Korean  
 Guide to the Pronunciation of Romanized Japanese  
 Glossary of Common Japanese and Korean Geographical Terms

- Section I - Place Name Index(Japanese-Korean)
- Section II - Place Name Index(Korean-Japanese)
- Map of Korea(Chosen)
- Appendix

다음으로 대축척 지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측량에 의해 일본인이 제작한 1:50,000 축척의 지도는 대부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제작되게 되는데 지명은 한자 표기와 취락 명에는 일부 가타카나(カタカナ)가 사용되기도 한다. 전체 723매의 지도가 작성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현재 미국의 한국전 기념 사이트에서는 2개 도엽의 중복을 포함하여 242매의 도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전후에 미군에 의해 제작된 한반도지도를 보면 미군의 Army Map Service에서 1:250,000 축척의 지도 44매를 제작하게 되었고, 이때는 한국어 로마자화 표기법을 사용하였고 일부 주요지명에서는 일본어의 로마자화 표기법도 병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지도에 나타난 지명표기에 관한 연구는 추후에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1:250,000 축척의 지세도를 발간할 당시에도 지명목록인 ‘Gazetteers to Maps of Korea (War Department, 1944)’가 제작된 것으로 확인하였지만 현재까지 그 책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지도의 제작시기를 검토한 결과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으로 다가가는 시점은 미군에 의해 한반도 지역에 대한 1:50,000 축척의 지도 제작이 시작되는 시기와 유사하다. 이 당시의 지도는 일본이 제작한 지도 위에 로마자화된 한국의 지명을 덧대는 방식으로 제작되거나 새롭게 편집되는 등 다양한 지도가 제작되었다.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의 지도는 그림 3과 같다. 이렇게 하여 미군지도에 표기되었던 지명은 통상적인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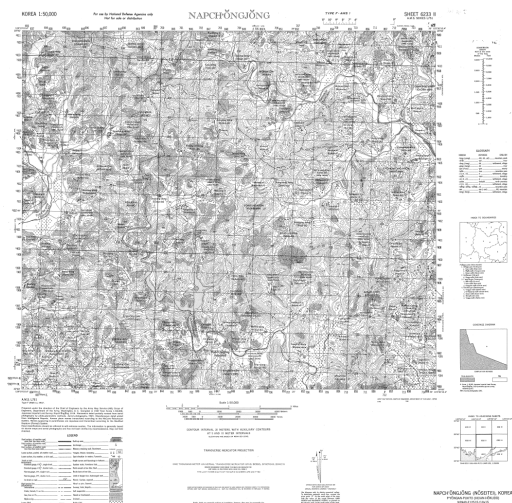


그림 3. 버클리대 도서관 소장 1:50,000 축척의 남청정도엽 (NAPCHONGJONG - AMS Map Sheet L751 - 6233 II)

도제작 과정을 통해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과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데이터베이스로 남아 오늘날에 이르러진 것으로 보이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에 의하여 수집된 한반도의 지도를 정리하여 미군이 재발간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당시에 사용된 지명으로 일본식 발음이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이라고 판단된다(<http://www.koreanwar.org>).

### III. 한국전 기념 사이트의 1:25,000 축척의 지도 분석

미국의 Korean War Project 사이트의 경우 구글 사의 협찬으로 한국전 관련 지도가 상당수 수집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1:50,000 축척의 지도는 242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가운데 완전히 일치하는 2개 도엽을 제외한 240개 도엽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1. 제작방식과 원도의 출처에 따른 분류

미국의 Korean War Project 사이트는 주로 미국의회도서관(LOC), 남침례교대학교의 Edwin J. Foscue Map Library(SMU),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대 도서관(UCB) 등 3개의 도서관에 소장된 242개의 1:50,000 축척의 지도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가운데 2매는 제작방식과 연도 등에서 다른 것과 완전히 중복된 것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같은 도엽명을 가진 것 가운데서도 만대리 도엽의 사례처럼 편집과 복제가 별개로 있는 경우는 서로 다른 지도로 보고 분석하였다.

240매의 지도의 제작 방식을 보면 편집(Compiled)이 125개 도엽이 있으며, 복제(Copied)가 91개 도엽,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제작된 것이 24개 도엽으로 분석되었다.

편집된 125개 도엽의 경우 대부분 1917~19년간에 발간된 지도와 1930년대에 발간된 일본제국의 수로지도(Japanese Hydrographic Chart) 및 1930년대 후반과 40년대 초반에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표 1. 제작방식에 따른 분류

제작방식	도엽수
편집	125
복제	91
재제작	24

편집한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27개의 도엽은 미육군 지도창(Army Map Service)에 의해 항공사진을 직접 도화하여 제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편집의 구체적 내용은 지도마다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944~1945년 항공사진 촬영에 의해 얻어진 정보를 중심으로 수준점을 수정하거나, 파괴되어 사라진 취락들을 지우거나 하는 정도의 미세한 수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편집 당시 사용한 기본도의 발간연대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상당수의 지도가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도를 중심으로 편집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시대에 원지도가 작성되었으며, 원본으로 이용한 지도의 재발간시기 문제는 추후 제작되는 미군지도의 지명표기에 그대로 반영되게 된다.

#### 2. 지명의 표기 방식에 따른 분류

##### 1) 편집과 복제로 제작된 지도 분석

앞서 1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미국의 한국전기념 사이트에 게시된 지도들 가운데 해방 후 새롭게 제작된 지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도는 1910년대에 발간된 지도 또는 1930년대에 발간된 지도를 중심으로 편집된 것임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들 지도에 표기된 지명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편집된 125개 도엽과 복제된 91개 도엽의 1:50,000 축척의 지도를 분석해 보면 표 3과 그림 4에

표 2. 원자료의 시대별 분류

원자료	도엽수
1910년대 이전	10
1920~1945	59
해방이후	24
불명	5
항공사진	27

표 3. 지명 표기에 사용된 언어별 분류(편집과 복제)

언어별	도엽수
한글, 일어 -로마자	52
한글-로마자	5
한글-로마자, 한글	39
한글-로마자, 한자	27
한글-로마자, 도엽명만 일어	2
한글, 일어 -로마자, 한자, 가나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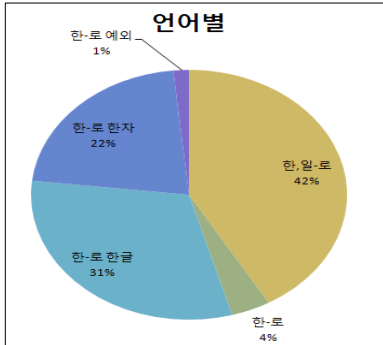


그림 4. 지명에 사용된 언어별 분석(편집된 125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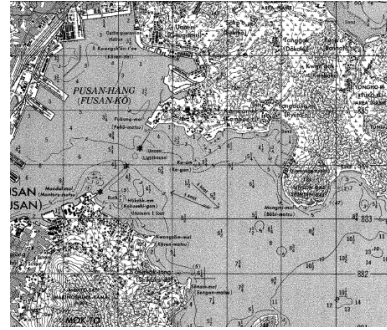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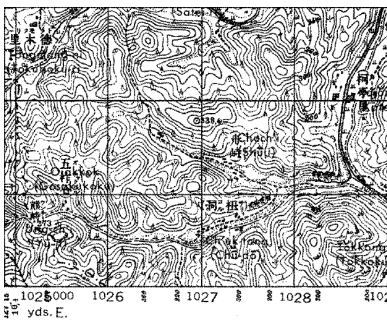


그림 6. 한글과 일본어 로마자화 사례(부산 도엽 일부)



A. M. S. L751

그림 5. 복제된 지도 사례(대전 도엽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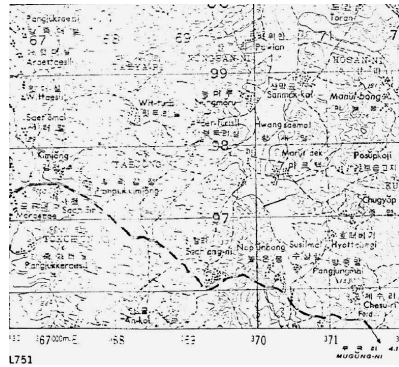


그림 7. 한글지명의 로마자화와 한글병기사례(장호원 도엽 일부)

나타난 것처럼 정리될 수 있다.

복제된 지도에 대한 난외주기의 내용을 1945년 발간된 청산(Chongsan; Seizan) 도엽의 난외주기를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Copied in 1945 from Korea 1:50,000, Japanese Imperial Land Survey, Chongsan, 1919.』 즉 제작 방식은 일본토지조사국에서 제작한 지도를 복제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한글 지명의 로마자화 방식은 'McCune-Reischauer System'이며, 일본식 지명 표기는 'Japanese names in paranthesis(Modified Hepburn (Romaji) System)'을 따른다고 표기되어 있다.

즉 복제된 지도들은 1910년대에 제작되었거나 또는 몇 도엽의 경우 1930년대에 발간된 지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로 표기된 한국어 지명과 이를 일본어 발음대로 가타카나로 괄호 안에 표기한 지명,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를 로마자화하는 등 하나의 지형지물에 모두 4가지 지명표기를 한 가장 복잡한 지도이다(그림 5). 그림 5에서 보이는 것처럼 복제된 지도는 한자어 지명, 한국어로 발음한 로마자화 지명, 괄호 안의 일본식 발음의 가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수정된 Hepburn

방식으로 표기하는 일본어 로마자화까지 4개의 지명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지도는 모두 91매에 달하며 소위 지도에 지명만을 덧대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작업을 통해서 제작된 지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대부분 1946~1947년도에 편집되어 제작된 지도이며 한자와 가나를 삭제하고 지명의 한국어 발음과 일본어 발음 두 가지 모두를 로마자화하여 하나의 지형지물에 모두 2가지 방식의 지명을 표기한 지도이다(그림 6). 그림 6에서 보이는 것처럼 부산항에 대하여 MR 표기법으로 로마자화한 지명(PUSAN-HANG)과 수정된 Hepburn 방식으로 일본어를 로마자화한 지명(FUSAN-KO)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지도는 모두 52매에 달하며 복제된 유형의 지명표기 방식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편집된 지도 전체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의 지도는 지명의 한국어 발음을 M-R 표기법으로 로마자화하고 한글 지명을 병기한 형태의 지도이다(그림 7). 이들은 1956년부터 항공사진을 이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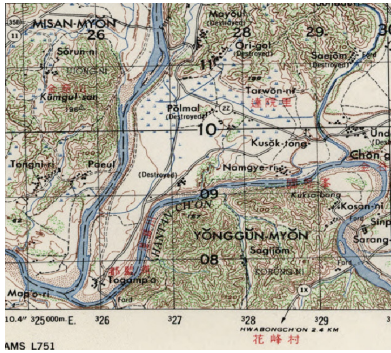


그림 8. 한글지명의 로마자화와 한자병기사례(연천 도엽 일부)

여 직접 제작된 지도들이 대부분이며, 항공사진은 한국 전 말기와 직후에 집중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제작방식은 1963년까지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지도는 모두 39개 도엽으로 편집된 지도 가운데 약 31%에 달한다.

네 번째 유형의 지도는 지명의 한국어 발음을 로마자 화하고 한자로 지명을 병기한 형태의 지도이다(그림 8). 이들은 27개 도엽 거의 대부분이 1952년과 1953년에 제작된 것으로 항공사진을 통해 수준점 등을 보완하면서 붉은 색으로 한자로 지명을 병기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지도는 모두 27개 도엽으로 편집된 지도 가운데 약 22%에 달한다.

마지막 유형의 지도는 2개 도엽에 불과하지만 한글 지명을 M-R 표기법으로 로마자화하여 표기하였지만 도엽 명만은 일본어 발음을 병기한 형태의 도엽들이다. 이에 속하는 지도는 신흥도엽(L751-6734IV)과 오산리도엽(L751-6625III)이 있다.

## 2) 재제작된 지도 분석

난외주기에 재제작된(redrawn)으로 표기된 지도는 모두 24매로 분석되었다. 전체 24개 도엽 가운데 제작 연도가 가장 이른 것은 1946년이며 대부분은 1946~47년 사이에 발간되었고, 가장 늦은 것은 1950년에 제작된 개성도엽 외에 2개 도엽이 더 있다.

이들 도엽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24개 도엽가운데 8개 도엽이 칼라로 제작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림 9의 개성도엽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칼라로 인쇄한 지도에 붉은 색으로 한자지명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지명표기가 이루어졌으며 지명은 역시 일관되게 M-R 표기법으로 로마자화되어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표 4. 지명 표기에 사용된 언어별 분류(재제작)

언어별	도엽수
한글, 일어 -로마자	16
한글-로마자	3
한글-로마자, 한자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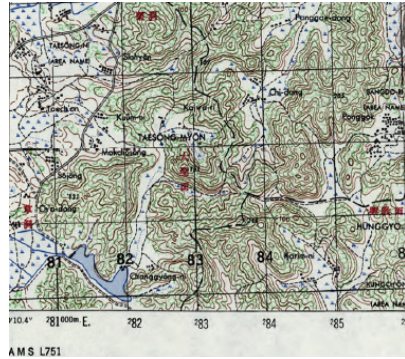


그림 9. 한글지명의 로마자화와 한자병기사례(개성 도엽 일부)

수 있다.

실제 이들 지도와 편집된 지도 간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후 지도학적 관점에서 Compiled와 Redrawn 지도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실점에서 이에 관한 연구는 이 논문의 분석의 목표를 벗어나고 있어 후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 3. 미국의 한국관련 지리 정보수집

240개 도엽의 미군에서 사용하던 1:25,000 축척의 도엽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1960년대 제작된 지도를 제외하면 미군의 지도제작 과정에 한국군의 역할이나 행정기관의 역할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명 데이터베이스가 지도 제작과정에 부수되는 작업임을 추정한다면, 지명을 수집 정리하는 과정에 일본식 지명이 대부분 그대로 수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도제작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한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1956년 01월 한-미 지도협정 및 2002년 한국 국방부-미국 국방성 간에 체결된 BASIC EXCHANGE AND COOPERATION AGREEMENT(BECA)에 따라, 한국 측에서는 국방지형정보단(2011년 7월 이



전의 육군지형정보단), 미국 측에서는 국가지리정보국(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의 책임 하에 군사 지형정보 기술 협력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국토지리정보원, 2008). 이러한 내용은 1963년에 발간된 대전도엽의 난외주기의 내용을 검토하면 짐작할 수 있다. 이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육군본부 공병감 지시 하에 육군측지부대에서 제작하였음. 미국동측지부가 1957년에 편집한 한국도 1:50,000 도엽 6723III로서 1963년에 편집하였음. 원도는 사진측량법으로 제작되었음. 수평 및 수직 기준점은 조선총독부에서 1910,1914년에 설정하였으며 대한민국 육군측지부대가 1960년에 조사하여 복구하였음. 지도는 대한민국 육군측지부대에서 1963년에 현지조사 하였음.

이렇게 1956년 이전 한국군과의 업무협조가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지도는 일제가 제작한 지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2006년 이래 정례화된 연 1회의 한미 지형정보회의 및 그에 따른 매년 전·후반기 1회씩 각각 열리는 한미 지형정보 실무자 회의의 통해, 국방지형정보단·국방정보본부, 미국 국가지리정보국 실무자들이 양국의 지형정보 관련 업무 협조와 상호 기술 교류를 위해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에서 제작된 다양한 디지털 지형정보 자료(Digital Terrain Elevation Data, Topographic Line Maps, Controlled image Base 등) 및 기술이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2008년에는 양국 지형정보 데이터베이스(Feature Data Base)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형정보DB의 표준화'와 관련되어 논의되었다. 지형정보DB는 한미 양국이 2006년부터 2년간 군사지리정보사업(Militar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결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로서 북한 지역은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이, 우리나라 지역은 국방지형정보단이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토지리정보원, 2008).

#### IV.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지명의 로마자화 표기 오류 문제는 단순히 한·일 두 나라간의 분쟁이 되고 있는 '동해 및 독도' 표

기의 오류를 넘어 국제적으로 공신력과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웹사이트 상에서 한국 관련 지명 오류가 보다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다. 지명표기의 오류문제는 국가의 정치, 문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민족 정체성과 세계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가영토주권에 관한 주장과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확한 인식의 확산 등을 위해 온라인상에 나타나는 지명관리에 보다 시기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전의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심각한 오류 사례로서 이명표기, 종속적 병기 표기 등의 오류 지명에 대한 집중적·지속적 시정 요청과 변경 여부의 정기적 확인이 요구된다고 하였다(김선희 등, 2009; 박경 등, 2009).

기존 연구에서 1943년 미군의 Army Map Service가 Map of Korea(Chosen)와 Place Name Index for Korea(Chosen)를 발간하였고, 이 지도는 한국의 지명을 일본어로마자화 표기법으로 일관되게 작성하였으며, 이 지도의 지명집에 1,194개의 한국지명이 한국식과 일본식으로 로마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간의 한국어 지명표기의 일본식 표기 확산의 중심으로 지적한 바 있다(박경·장은미, 2008; 박경 등, 2009).

하지만 이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1,200여개의 지명만으로 미국의 국가지리정보국에서 운영 중인 2011년 6월 현재 168,515개의 방대한 우리나라 지명과 그 데이터베이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일본식 지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미국지리정보국이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임을 감안하여 미군에서 사용했던 대축척의 지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미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Korean War Project)에 게시 중인 240개(전 242개 도엽)의 1:50,000 축척의 지도를 분석하였다. 이들 지도에서 지도제작을 위한 데이터 수집방법 또는 지도제작 방법에 관련된 내용과 제작연도 및 지명표기를 위해 사용된 언어를 중심으로 난외주기를 읽어서 분석하였다. 전체 지명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축척 지도인 만큼 많은 수의 지명이 정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체 242개 도엽 가운데 분석에 이용된 240개 도엽 중 91개 도엽의 지도는 1910년대에 제작된 지도와 1930년대에 일본이 보완 제작한 지도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며, 24개 지역의 지도는 일본이

제작한 지도를 기반으로 재작성한 것이다. 이들 지도는 이전 지도에서 한자와 가나를 제거하고 한국어와 일본어를 로마자화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많은 수인 125개 도읍은 일제 강점기의 지도에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수집한 항공촬영정보를 보완하여 편집한 지도이다. 일본식 지명은 복제된 지도와 대부분의 편집된 지도에 그대로 나타나며, 이들이 미국의 국가지리정보국에서 운영 중인 GeoNames라는 지명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이칭의 형태로 남아 구글 어스 지도와 같은 인터넷 매체에 발견되는 오류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문서적 검토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이용 가능한 1:50,000 축척 지도의 난외주기를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몇 가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미군에서 사용한 다양한 축척의 지도들을 분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늦게는 1960년대의 지도까지도 포함하게 되면서 제작방식의 변화와 한국군이 참여한 지도 등 지도제작의 주체가 달라지는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추후 연구에서 제시한 3개 지역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자료 발굴을 통해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지도만을 한정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도의 습득 방식이나 제작에 관한 문서적 접근방법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는 지도에 대한 분석만을 통해 간접적인 접근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추론의 한계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추후 미국문서보관소 등의 미군정청 자료 분석을 통해서 지도제작 방식, 원초 자료의 습득과 관련된 문서자료의 발굴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국토지리정보원, 2006, 「강원권 일본식 지명의 조사 및 정비 방안 연구」.  
 국토지리정보원, 2007, Gazetteer of Korea(I·II·III).  
 국토지리정보원, 2008, 「2007년 국제지명표준화 활동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  
 국토지리정보원, 2008, 「해외 지명 오류 조사 연구」.  
 국립해양조사원, 2006, 「동해 명칭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통용 기반 구축 연구용역 보고서」.

김선희, 2008, 「『오만분지일지형도』에 나타난 20세기 초 한반도의 지명 분포와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43(1), 87-103.  
 김선희·박경·이해미, 2009, 「해외에서의 한국지명 표기 실태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44(6), 706-722.  
 김수남, 2002, 「국어 로마자 표기법의 역사적 변천과 원리,」 인문학연구, 28, 177-200.  
 김종혁, 2006, 「한국 지명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분석과 발전 방향,」 한국지도학회지, 6(1), 47-59.  
 남영우, 2007,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한반도 지도제작,」 한국지도학회지, 7(1), 19-30.  
 남영우·이호상, 2010, 「일제 참모본부 장교의 측량침략과 조선 목측도의 특징,」 한국지도학회지, 10(1), 1-12.  
 남영우·김부성, 2009, 「독일 지도학자 Siebold의 생애와 업적,」 한국지도학회지, 9(1), 1-12.  
 동북아역사재단, 2007, 「동해·독도 온라인 표기 오류시정 연구용역보고서」.  
 박경·장은미·김선희·이해미, 2009, 「인터넷 지도에 나타나는 한국 관련 지명 오류에 관한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9(1), 13-25.  
 박경·장은미, 2008, 「A Study on Japanese and Foreign Place Names in Google Earth Satellite Images and GNS Database on South Korea,」 대한지리학회지, 43(2), 188-201.  
 배재덕, 2009, 「국어 로마자 표기법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동북아문화연구, 21, 129-146.  
 손용택·한관중, 2006, 「한반도 주변 주요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지명 왜곡과 오류 실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5(4), 83-106.  
 양병선, 2000, 「국어의 영문표기 및 로마자표기에 관한 제언,」 번역학연구, 1, 145-167.  
 양보경, 2004, 「조선시대 고지도에 표현된 동해 지명,」 문화역사지리, 16(1), 89-111.  
 오일환·김기수, 2004, 「18세기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제주도: 형태와 명칭표기 변화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6(1), 113-122.  
 이경한, 2004, 「미국 세계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련 내용의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3), 375-394.  
 이기석, 2004, 「지리학 연구와 국제기구 -동해명칭의 국제표준화와 관련하여-,」 대한지리학회지, 39(1), 1-12.

- 이진호, 1989, 「대한제국 지적 및 측량사」, 서울: 토지.
- 정인섭, 1971, “한글 Romanization의 역사적 고찰,” 한국  
외국어대학교 논문집, 4, 273-291.
- 정희원, 2005, “로마자표기법 개정 및 보급,”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2005-1-25.
- 정희원, 1997, “역대 주요 로마자 표기법 비교,” 새국어생  
활, 7(2), 27-43.
- 주성재, 2007, “바다 이름의 국제적 표준화 사례와 동해 표기  
정당화에의 시사점,” 대한지리학회지, 42(5), 745-760.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7, 「지명의 지리학」, 서울: 푸  
른길.
- 해양수산부 해양지명위원회, 2004,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
- Cohen, S.B. eds., 2008, *The Columbia Gazetteer of the  
Worl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oto B. and Kanazawa, S., 1903, *A Catalogue of the  
Romanized Geographical Names of Korea*, Tokyo:  
University of Tokyo.
- National Oceanographic Research Institute, 2006, *A Study  
for Promoting International Diffusion of Marine  
Geographical Names*(in Korean), Incheon: NORI.
- Randall, R.R., 2001, *Place Names: How They Define the  
World and More*, Lanham: Scarecrow Press, Inc.
- Satow E., Aston W.G. and Chamberlain B.H., 1882,  
*Manual of Korean Geographical and other Proper  
Names Romanized*, Washington, D.C: Howard Press.
- UN, 2006,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Manual for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s.
- UN, 2007,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Technical reference manual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s.
- U.S. ARMY:ARMY MAP SERVICE, 1943, *Place Name  
index for KOREA(CHOSSEN)*, Washington, D.C:  
War Dept., Army Map Service, Corps of Engineers,  
U.S. Army.
- <http://earth-info.nga.mil/gns/html/index.html>
- <http://erg.usgs.gov/nimamaps/bgn.html#info>
- <http://unstats.un.org/unsd/geoinfo/gegn22wp22.pdf>
- <http://www.korea.net/>
- [http://www.koreanwar.org/html/korean\\_war\\_topo\\_maps.html](http://www.koreanwar.org/html/korean_war_topo_maps.html)
- <http://www.mofa.go.jp/policy/maritime/japan/index.html>
- <http://www.mofat.go.kr/press/hotissue/eastsea/index.jsp>
- [http://www.nti.org/e\\_research/profiles\\_pdfs/nk/korean\\_tr  
ansliteration.pdf](http://www.nti.org/e_research/profiles_pdfs/nk/korean_tr<br/>ansliteration.pdf)
- <http://www.pcn.org.uk>
- 교신 : 박경,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성신여자대학교 사  
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이메일 kpark97@sungshin.ac.kr)
- Correspondence : Kyeong Park, 249-1, Dongseon-dong  
3-ga, Seongbu-gu, Seoul,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Email:  
kpark97@sungshin.ac.kr)

투 고 일: 2011년 7월 16일  
심사완료일: 2011년 7월 31일  
투고확정일: 2011년 8월 16일